



한농연 중앙연합회 소식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 보완을 위한 간담회' 열려



한농연중앙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농연회관 5층 강당에서 한농연 중앙임원 및 각 도 연합회 회장 및 회원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보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재한 농림부 협동조합과장 및 이상준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장 등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농연 임원 및 지역 회원들이 제기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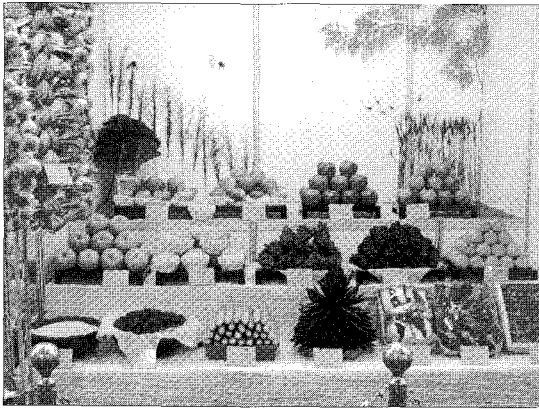
한농연 중앙임원들과 지역 회원들은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가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임에도 불구하고, 일선 창구 직원들의 대응상 문제점 및 심사 점수표에서의 배점 체계의 맹점, 농신보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연체 농민 및 신용불량자 농민들의 배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재한 협동조합과장과 이상준 농업금융부장은 “일선 창구 직원에 대한 교육 강화, 회원농축협 내 평가위원회 설치를 통한 농민단체 대표들의 참여 폭 확대, 준 전업농 기준 및 농업용 부채 규모의 하향 조정, 연체 자금 농민 구제를 위한 자금 종류 및 기간 확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한농연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가시적인 정책성과도 나타났다. 농림부는 10월 1일 농가부채 경감대책 신청기한을 11월 말까지 연장하고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의 개선을 위한 각종 대책을 마련·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서정의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은 “일선 시군, 읍면동회장을 포함한 지역 농민단체 대표들이 경영평가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제도 홍보 및 수혜 농민 확대를 위한 회원농축협 임직원들의 보다 성의 있는 대응을 통해서, 농업경영회생자금 제도가 더욱 내실 있는 농가 구제대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맛도 으뜸! 모양도 으뜸!

한농연, '제13회 으뜸농산물 전시회' 개최



지난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관에서 제 13회 전국 으뜸농산물 전시회 개막식이 열렸다. 전국 으뜸농산물전시회는 그동안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생산해 내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업체에 큰 힘이 되고자 노력해 왔다.

비록 매스컴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수많은 농산물과 식품들이 홍보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지역의 우수농산물들이 제대로 소비자들에게 주목받지 못해 사장되고 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더욱이 우리농산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유통과정에서의 도덕적해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갖게 된 우리농산물에 대한 불신의 벽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건강식품박람회 및 으뜸농산물전시회를 통해 우리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소비자신뢰회복을 이끌어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12만 농업경영인들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식품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심어줌과 동시에, 우수한 국내 농산물을 발굴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과 건강식품 내수판매와 수출촉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농업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우리 한농연이, 그 땀과 노력의 결실을 당당히 평가받고, 도시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널리 홍보하는 전시회로 자리매김한지도 13년이 되어가는 만큼, 앞으로도 그 명성에 걸맞는 전국 최고의 으뜸농산물을 홍보해 내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이번 전시회는 농민과 업체에게는 안정된 판로 개척을,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서구식 패스트푸드에 아님 몸에 좋은 우리 농산물을 접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산하연합회 소식

경상북도 농업인단체 지역농업 발전 간담회 가져 농정현안에 관한 의견교환 및 대안모색에 함께 할 터

지난 7일 경상북도에서는 도내 5개 농업인단체 대표 및 임원과 쌀 관세화 관련협상, 추곡수매가 인하에 따른 소득보전 대책 및 지역농정의 현안사항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한국농업경영인경북도연합회 박노옥 회장을 비롯하여 전국농민회경북도연맹 황인석 의장, 전업농경북도연합회 정태근 회장 등 도 단위 농업인단체 임원 15명과 이의근 도지사를 비롯한 농수산국장, 실무담당과장이 함께 참석하여 개방화 및 농촌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농업의 발전방안과 농업인들의 소득보전 방안 모색을 위해 진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 대표들은 쌀 관세화 관련협상과 식량자급을 법제화 추진, 추곡수매제 폐지를 포함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철회,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제정,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불제 조기 확대 실시, 내년도(05) 도 농정예산 20%확대 등 농정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였고, 이의근 도지사는 정부의 협상과정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도 농정에 접목하는 시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 이며 중앙정부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경북도는 지역 농업인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농정현안 타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며, 경쟁력 있는 농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시책 개발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인농연**